

제1편

생활 속의 전파



제1장 현대 생활과 전파

- 제1절 전파와 통신혁명
- 제2절 다양한 전파의 이용
- 제3절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전파의 역할

제2장 전파관리의 어제와 오늘

- 제1절 전파관리
- 제2절 우리나라의 전파관리

제1장 현대 생활과 전파

전파는 인류의 현대문명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더욱이 인류가 '지구'라는 공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에 경쟁하고 있는 오늘날, 전파는 단순히 개개인의 생활이나 사회 및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유지하는 기본 수단이 라는 제한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 진보를 추동하는 필수 불가결의 발전 동인으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과거 단순히 방송과 무선통신에 국한되었던 전파의 이용은 현재 무선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데이터 통신의 발전은 물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을 언제 어디서나 연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됨으로써 정보화사회 건설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제1절 전파와 통신혁명

오늘날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확산과 발전은 이미 100여 년 넘게 인류가 사용해 온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사실 인류에게 전파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130여 년 전 스코틀랜드의 과학자 맥스웰(James Clerk Maxwell, 1831~1879)은 전파의 존재를 최초로 예언하였다. 오래 전부터 인류는 마찰시킨 물질이나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성질이 있음을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었는데, 맥스웰은 이와 같이 작용하는 전기와 자기에 관한 지식을 연구하여 전계가 시간적으로

변하면 자계가 생기고, 자계는 또 전계를 발생시키면서 파동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맥스웰이 발표한 파동이 바로 전파이며, 이때 전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는 것도 알려졌다.

전파를 포착하는 기구를 만들어 맥스웰의 전자기파 원리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독일 과학자 헤르츠(Heinrich Hertz, 1857~1894)였다.

전파의 실용화에 성공을 거둔 사람은 잘 알려진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 1874~1937)였다. 마르코니는 1896년 런던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실험에 성공하였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 간 무선통신에 성공하였고, 마침내 대서양을 횡단하는 무선통신에 성공을 거둔다. 마르코니의 대서양 횡단 무선통신 성공은 무선통신의 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2절 다양한 전파의 이용

산업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전파는 인류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전파를 통신매체로 이용하는 무선통신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파의 특성을 살려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전파는 커뮤니케이션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초고속통신에 있어서 전파자원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만들어 준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비쿼터스 사회의 진전과 함께 더욱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 통신수단

전파의 가장 보편적인 활용 분야는 역시 무선을 이용한 통신수단으로 주파수 또는 변조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 V/UHF대를 이용한 중·단거리 무선통신은 물론, HF대를 이용한 장거리 무선통신이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장비가 점차 디지털화되고, IT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위성통신으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위성통신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 아니라, 이라크전과 같은 현대전

에서 전쟁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해 주었다.

오늘날 위성을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는 국력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통신·방송·군사·교통·GPS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됨으로써 인공위성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나. 탐사 및 관측

전파는 탐사 및 관측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파를 발사시켜 물체에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존재와 그 거리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더를 이용하면 사람이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관측이 가능한 것은 물론, 칠혹 같은 어둠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다. 그밖에 천체 관측에도 전파가 이용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전파망원경을 통하여 우주를 관측함으로써 은하계나 별의 형성 과정과 진화의 비밀을 풀어가고 있다.

다. 에너지 자원

전파를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 가운데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있다. 전자레인지는 2.45GHz의 마이크로파가 지니고 있는 유전가열 원리를 이용하여 손쉽게 음식을 데우거나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마이크로파는 공기, 유리, 종이 등을 투과하면서 식품이나 물 등에는 흡수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수된 전자파 에너지는 열로 변화하여 음식물을 가열시켜준다. 그 밖에 고주파 가공 분야에서도 마이크로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라. 연구개발 분야

전파를 이용하면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및 응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파를 이용하여 비구름의 강수량 분포 측정이 가능하며, 기상레이더를 이용한 집중호우 사전 예측도 가능하다. 위성통신의 전파를 이용하여 해수면의 온도와 염분농도 등 바다의 생태와 지표의 온도, 토양의 메마름, 적설지표 정보 등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특히 전파는 우주개발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데, 태양계 탐사를 위하여 제작된 행성탐사선 갈릴레이와 패스파인더는 오랜 시간을 비행하여 목성과 토성을 탐사하면서 입수한 정보를 지구까지 전파를 이용하여 송신하였다. 이밖에 태양의 활동과 자기폭풍 등도 전파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마.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는 음성·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고정 또는 휴대용 수신기에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로 ‘손 안의 TV’라고도 불린다. 이동 중에도 개인휴대단말기나 차량용 단말기를 통하여 고음질·고화질 방송을 즐길 수 있어 차세대 방송으로 주목 받고 있다.

2004년 3월 DMB와 데이터방송 등 새로운 방송 서비스 도입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DMB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상파 DMB와 위성 DMB 두 종류가 운용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 DMB의 경우 2005년 12월 본 방송의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제3절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전파의 역할

무선통신의 발달은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특히 이동통신의 발달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사회를 통하여 전파기술의 활용은 더욱 활발해졌고 그에 따른 신기술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IT 패러다임은 단연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유비쿼터스 준비작업은 정보통신부 주도하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부품연구원, u-코리아 포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핵심기술별로 프로젝트 기반의 유비쿼터스 사업단을 발족하여 대기업 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1. 유비쿼터스를 이끄는 RFID/USN

RFID/US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biquitous Sensor Network) 서비스는 모든 사물에 센싱, 컴퓨팅 및 통신 기능을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유비쿼터스 서비스이다. RFID/USN 기술은 유비쿼터스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 서비

스와 상거래를 가능하게 해 준다. RFID는 ‘전자태그’라고도 불리며, 비접촉식(Contactless), 비가시선(Non line of sight)의 데이터 수취기술로서 초소형 IC 칩에 식별정보를 입력하고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칩을 지닌 물체를 판독, 추적, 관리할 수 있어 상황 인식을 가능하게 해 준다.

국내에서 RFID/USN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분야로 세계적으로 기술 활용의 좋은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에는 출입 카드에 RFID 칩이 내장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라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RFID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다. 이런 이유로 RFID/USN 서비스는 과거 CDMA 신화와 같이 우리나라 IT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주요 활용 분야

가. 지능형 도시 인프라 ‘u-시티’



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상황을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시켜주는 도시 지능화(Intelligence)도 멀지 않았다. 이는 IT와 건설 인프라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도시 인프라인 ‘u-시티’의 탄생으로 가능하다.

도로는 RFID, 센서, GPS 등과 결합하여 ‘텔레매틱스(Telematics)’ 등의 지능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교량이나 터널, 상하수도 등의 시설물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등과 결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가진단으로 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건물에는 온도조절이나 환기, 가스 누출 여부, 지진감지 등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수행하는 지능형 건물관리 기능이 내장된다.

나. 자동차 산업

제작 단계 또는 출고 과정에 있는 차량에 RFID칩을 적용하면 고객은 주문한 차량이 현재 작업공정상 어떤 상태인지, 출고된 차량의 주차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자동차에 RFID를 이용함으로써 제조에서 완성, 탁송에 이르

기까지 자동화생산·출고 관리를 가능하게 해 주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측면에서 비용의 절감을 가져다 준다.

다. 물류 산업

물류자동화는 선적에서 하역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핵심 적용 분야이다. 상품에 대한 추적과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컨테이너에 RFID칩이 장착됨으로써 물류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류산업에서 유비쿼터스의 활용은 물류 ITS와의 연동으로 물류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라. 유통 산업

소매업종은 가격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유통과 관리비용 절감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RFID를 이용하여 몇 가지 경쟁력 확보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소매거래에서는 전체 거래 평균의 약 1.8%, 최대 3% 정도 손실이 점포에서 도난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생산단계에서 제품에 RFID칩을 적용함으로써 도난 또는 상품의 손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유통기간의 관리자동화로 효과적인 매출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적재적소에 상품을 공급하고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재고량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마. 가전 산업

가전제품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인 ‘스마트 홈’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시장창출과 구매촉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냉장고는 식품에 달려 있는 RFID칩을 읽어서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식품의 종류와 수납 위치 등을 알 수 있으며, 유통기한 확인은 물론, 냉장고 스스로 부족한 식품을 알려주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과 PC가 네트워크로 묶이면 자가진단을 통해 이상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업체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써 서비스비용과 관리비용의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제2장 전파관리의 어제와 오늘

제1절 전파관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생활하는 것은 이미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유비쿼터스 사회에 가까이 와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한 상업용 전파통신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급증하여 전파 관련 산업의 고용증대 및 생산유발 효과가 촉진되고 있다.

1. 전파관리의 중요성

산업·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 전파산업의 비중은 이미 1999년부터 무선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유선통신을 추월하였다. 최근에는 디지털멀티미디어화의 진전으로 초고속 인터넷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은 물론, 주파수관리와 분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주파수대역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이 요구되고 있으며, 더불어 전파이용의 유연성 향상, 신속한 주파수 공급에 역점을 둔 전파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교통경찰이 곳곳에서 차량 혼잡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전파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역할이 커지고 있다.

2. 전파관리의 발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파이용의 활용이 다양화되는 것과 같이 전파관리의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규제와 단속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올바른 전파이용과 이용촉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DMB, DTV 서비스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전파환경 조사와 주파수 재배치를 위한 주파수이용 현황조사도 중요한 업무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통하여 전파장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주파수 자원의 개발에도 밑거름이 되고 있다.

체계화된 전파관리를 위하여 오는 2008년까지 495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도 지능화된 광대역 디지털 전파감시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이동감시차량과 전국 고정감시국소 지휘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상황을 상호 연계시켜 체계적인 전파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2절 우리나라의 전파관리

1. 전파관리의 역사적 흐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전파관리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47년 6월 1일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1949년 8월 13일 ‘지방체신관 서설치법’ 제정에 따라 표준주파수와 시보전파 발사, 무선시설의 검정과 전파포착을 담당하는 전파감시국 설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1949년 11월 22일 서울, 부산, 광주 등 3곳에 체신부장관 소속으로 전파감시국이 설치되었으며, 1964년 10월 23일에는 강릉전파감시국이 신설되었다.

1979년 9월 7일에는 특별감시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전담하기 위한 전파통제소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파감시국은 일반감시 업무만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전파감시의 이원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1980년 이후에는 전파감시국을 전파감리국으로 개칭하였으며, 전파통제소는 전파통제국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전파감리국 및 전파통제국을 통·폐합하여 마침내 1983년 12월 30일 중앙전파감시소로 승격 신설되었고, 1987년 12월 15일 현재의 명칭인 중앙전파관리소로 개칭되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위성전파감시센터 및 전국 12개 지방전파관리소, 8개 분실, 60개 원격국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전지역에 대한 전파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전파관리의 목표

초고속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통신망과 방송망의 통합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와 고품질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새로운 전파이용의 패러다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물론 사용자의 증가에 따른 불법무선국 운용 및 불법전파설비 사용 같은 부작용과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파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불법전파설비 유통방지 등 전파이용 질서 확립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깨끗한 전파환경 조성’이라는 전파관리의 비전을 세우고, 전파이용 질서 확립, 전파이용 촉진, 전파주권 보호, 전파이용 편익증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 전파이용 질서 확립

전파이용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파감시 활동과 불법전파설비 조사단속, 불법 감청설비 및 휴대전화복제 단속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종합전파감시망을 이용해 20MHz~2GHz대 주파수대역을 탐사하여 불법전파 및 불법무선국을 색출하고 있으며,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에 대한 주파수의 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 허용치 등을 측정함으로써 전파의 품질유지를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선국이 전파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운용하는지, 허가받지 않고 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및 신고 없이 불법 운용하는 무선국 또는 무선

기기를 단속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정보통신 기기 제작·수입 시 전파법에 의한 형식검정, 형식 등록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지 않고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 보호를 위하여 인가받지 않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광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물론, 휴대전화복제 단속을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각종 범죄수단으로의 악용을 막아내고 있다.

이밖에 선박과 항공기의 조난·긴급·안전통신을 관리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전파모니터링 제도의 일환으로 아마추어무선통신 자율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전파이용 촉진

우리 모두의 자원인 소중한 전파를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과 재분배 등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주파수이용 현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와이브로 등 u-IT839전략을 위한 전파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TV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권역을 조사하여 방송국 허가 관련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수신상태를 조사하여 난시청지역 해소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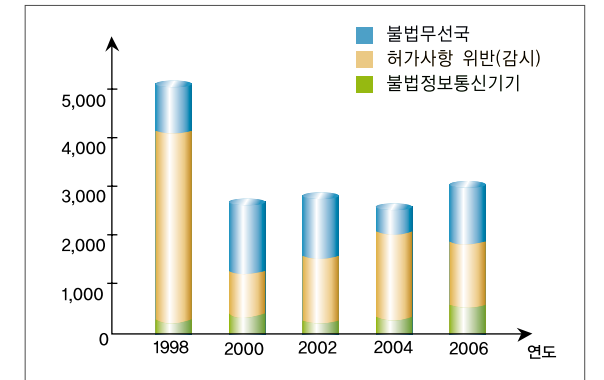
또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파환경 조사 수탁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 장소에서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 잡음 정도 등을 측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최첨단 측정기를 이공계 대학 및 산업체 등의 실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파방향탐지장비 교정시스템을 자체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교정시스템을 산·학·연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를 개방하고 있다. 또한 대학 및 연구소와 우주전파 기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위성통신산업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 전파주권 보호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는 국제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인 이용, 전기통신 표준화의 촉진, 각국의 무선국 간

[그림 1-2-1] 연도별 단속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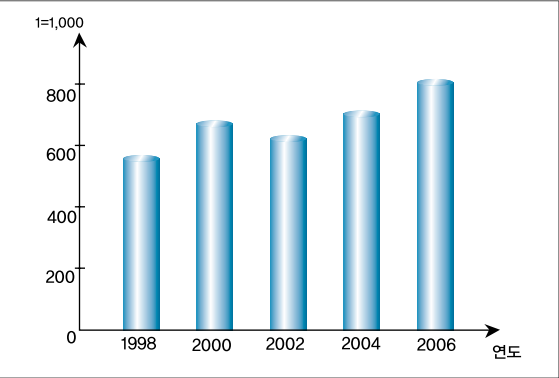
유해혼신 방지 등을 통하여 쾌적한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TU 이사국으로서 국제전기통신현장 및 협약의 준수와 국내 전파권익 보호로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파권익 보호와 국가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인접국가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국내 수신상태, 전파품질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ITU와 해당국 주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또한 인접국가에서 사용하는 전파가 우리나라의 통신망에 혼신을 발생시키거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파가 인접국 통신망의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혼신원을 조사하여 국가 간 전파분쟁을 해소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위성전파관리의 필요에 따라 지난 2002년 세계 5번째로 위성 전파감시센터를 설립하여 본격 운용함으로써 그동안 수행하지 못했던 위성전파 분야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다.

라. 전파이용 편익증진

[그림 1-2-2] 감시대상 무선국 증가현황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전파규제 완화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파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파간섭현상으로 통신이 두절되고, 산업설비와 가전기기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전국에 19개 CS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간·벽지를 찾아가 대국민 전파서비스로 고객불편사항 해소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전파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는 통합민원처리시스템(CTI)을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올바른 전파이용을 위하여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가두캠페인이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썸머 라디오 캠프’와 ‘겨울 IT 드림 캠프’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전파에 대한 이해와 탐구심을 고취시켜 주고 있다.